

새정치민주연합	성명	충남도당
일자: 2015년 8월 25일(화)	대변인 : 어기구 위원장(010-3433-7084) 담 당 : 이영구 정책실장(010-2390-682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19-37 승지빌딩 503호 / 041-569-1500		

**새누리당 김제식 도당위원장은 충남도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새누리당 윤리관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새누리당 김제식 도당위원장의 욕설과 막말,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이 충남도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역 유권자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막말을 퍼부은 것이 방송에 적나라하게 보도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엔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가 절정에 달한 지난 23일 밤 폭탄주 회식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김제식 의원은 본인의 생일파티였고 보좌진 이외에 당원들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난 23일 밤은 남북 간의 대치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점이고, 새누리당에서도 주요당직자들이 비상대기 하던 상황이라서 김제식 의원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서해5도 주민들은 5일째 조업을 하지 못했고 접경지역의 국민들이 대피소에 피난한 채 초조히 남북협상을 지켜보던 시점에 새누리당의 충남도당위원장이 술판을 벌인 것은 백번 양보해도 사려 깊지 못한 처사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김제식 의원은 해군경비정을 사적으로 사용했을 때도, 지

역유권자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을 때도, 이번 술판을 벌인 일도 도민과 유권자들에게 정중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행태를 보인 김제식 의원이 새누리당의 윤리관을 맡고 있다는 것이 과연 옳으냐고 보도하는 것이다.

김제식 의원에게 촉구한다.

김제식 의원은 지금이라도 충남도민과 유권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김제식 의원은 새누리당 윤리관직에서 즉각 물러나라!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5년 8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